

중기이코노미 인세하기

인세하기

회화...보여주기 위하여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

눈 먼 자들의 그림...이연석작가 '눈 먼 입 Act. 2'

기사입력 2024-01-05 13:50

황제빈 미술평론가 (inthebox28@gmail.com)

거울이 가득한 공간에서 누군가 움직인다. 하얗고 긴 옷을 두른 퍼포머가 옷자락을 바닥에 끌며 걷고 있다. 배경으로 목소리가 들린다. 단조롭고 무미한, 기계적인 목소리다. 작은 객석에 관객이 앉아 있고 그들은 벽을 등진 채로 있는데, 바로 그 벽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그림이 빼곡하게 붙었다. 공연장도 전시장도 아닌 어떤 곳에서 그림을 등진 관객. 이연석이 제작한 '눈 먼 입 Act. 2'(2023)의 풍경이었다.



'눈 먼 입 Act. 2(Eyes Far Lips Act. 2)' 전경. <사진=uma shin>

이연석의 회화를 처음 본 것은 과거의 한 전시에서였다. 영등포 인근의 전시공간에서 열린 'Vera Verito'(기획:김나현, 2020)에 그의 작업이 걸려 있었다. 특히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. 두텁고 큰 캔버스 위에 작고 흐릿한 형상을 담아 놓은 회화였다. 아주 먼 곳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것처럼, 혹은 두터운 안개 속에서 그림을 마주친 것처럼. 마모된 필치로 묘사되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형상에 오히려 눈이 갔다.

<https://www.junggi.co.kr/article/articleViewPrint.html?no=31538#>

Page 1 of 3

<https://www.junggi.co.kr/article/articleViewPrint.html?no=31538#>

Page 2 of 3



'눈 먼 입 Act. 2(Eyes Far Lips Act. 2)' 전경. <사진=uma shin>

이연석은 첫번째 개인전 '눈 먼 입'(2022)에서 회화를 마치 벽처럼 세워두었다. 검은 천을 두른 큰 캔버스가 전시공간을 가로막고, 분할하고 있었다. 보여주지 않기 위한 회화들은 회화이기를 멈추고 벽과 같은 것이 되었다. 이후 약 1년 여의 시간이 지나 열린 '눈 먼 입 Act. 2'에서 회화는 정말로 무대장치가 되었다. 퍼포머들이 음악을 연주하고, 움직이고, 배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회화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관객은 거의 없었다. 대상과 캔버스 사이에서 화가가 경험했던 비시각의 공간, 그 눈멀의 공간이 관객과 회화의 사이에서 다시금 벌어지고 있었다.

이연석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림의 기원으로 되돌아가고, 그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회화에게로 되돌아간다. 그것은 우리가 알던 회화와는 물론 꽤나 다른 모습이다. (**중기이코노미 객원=황제빈 미술평론가**)

<저작권자 © 중기이코노미.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>

<https://www.junggi.co.kr/article/articleViewPrint.html?no=31538#>

Page 3 of 3